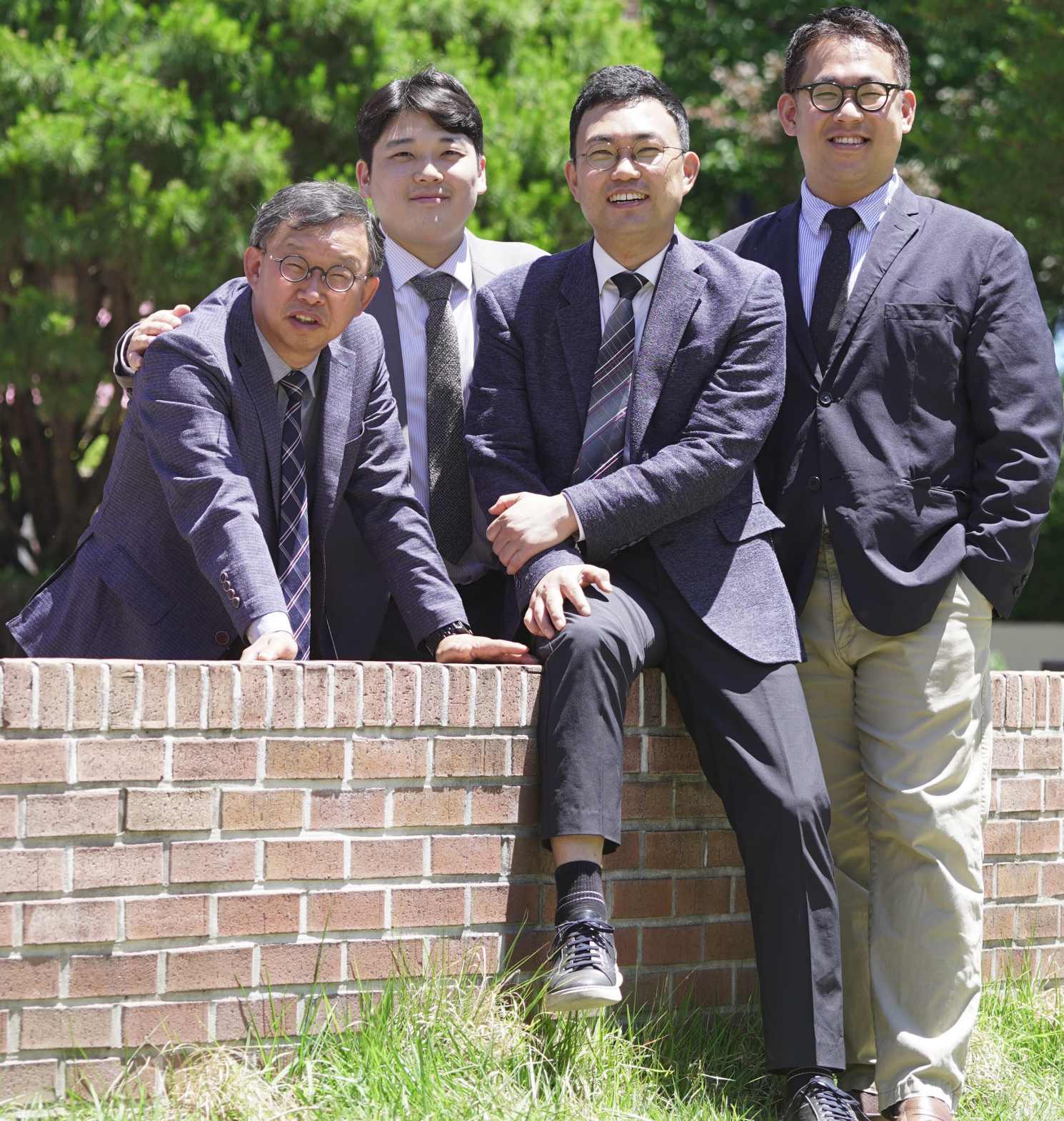


KOKKOS 6

JUN 2024 VOL. 266



개교 72주년 기념예배

최정권 목사 제8대 총장 취임식

“복음전도자 내 보내는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



총장 취임식을 마친 후 총장과 이사장 내외가 함께 하였다.
(왼쪽부터 박은유 사모, 최정권 총장, 강우정 이사장, 강진 사모)

13일, 제 8대 최정권 총장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최 총장은 취임사에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섬겨 갈 복음전도자를 세상에 내 보내는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72년간 복음의 일꾼을 보내는 대학으로 정체성을 고수하면서도 비굴하게 머리 숙이지 않았다. 세속의 바람에도 굳건했다”며 우리 대학이 가진 소중한 가치 세 가지를 말하였다.

“첫째, 작다는 것이며 이는 큰 강점이다. 작아서 공동체 간 사랑과 인간관계의 풍성함이 있다. 활발한 소통을 통해 토론과 협력을 증대시키고 대인관계 능력 등을 겸비케 해 준다. 둘째, 아름다

운 학생들이다. 학우들은 정직과 성실, 따뜻한 인성을 갖추면서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인재가 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대학의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강한 힘에 있다. 우리는 교육부의 요구 지표를 달성하며 기독교 대학 모델로 거듭 성장하고 있다. 강함은 재정과 숫자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며 겸손의 길을 걸겠다고 밝혔다.

취임사에 앞서 강우정 이사장이 최정권 총장으로부터 총장 취임 서약을 받은 후 총장임명패를 수여하였다. 한국성서선교회 현희철 이사장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 받는 총장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은 “성서대학의 가치를 드높여 주님께 영광 올려 줄 것”을 권면하였다.

성서대 총동문회(회장 윤두태)와 한국성서선교회(회장 현희철)가 최정권 총장에게 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식과 본교 27회, 총신신대원 79회 동문회, 성서대학교회, 학교 교수부, 우리회에서 축하와 취임기념품을 전했다.

취임식에 앞서 기념 예배에서 송태근(삼일교회) 목사가 ‘성령과 우리’(행 15:28~29)로 말씀을 전했다. “성서대학은 성경 그 자체를 사랑하고 강조하는 귀한 대학이다. 성서공동체가 이 민족의 아픔을 향해 기도로 매달릴 때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이병철(춘천주향교회) 목사의 기도, 총동문회장 윤두태(가성교회)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024년 밀알축제, 뜨거운 열기 속 진행

흥과 끼, 맛과 멋을 충족시킨 우리들의 축제

다음총학(회장 채경훈)이 진행한 2024년 밀알축제가 13일 교정 곳곳에서 흥과 끼, 맛과 멋을 뜨겁게 발산시키며 펼쳐졌다. 특히 초청 아티스트의 등장에 열기는 정점으로 치달았다. 경수민의 ‘With YOU’ 등과, 유다빈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항해’를 비롯, 피날레를 장식한 허성현이 Revival, 펄펄, 마이웨이 등 10여곡 이상을 실세 없이 토해 내며 무대와 학우 모두를 뜨겁게 녹여냈다.

이 날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잔디밭 곳곳에 설치된 부스에는 동아리들이 마련한 각종 먹거리와 음료가 차려져 미각을 자

극하는 동시에 회원 홍보에 열기를 보여줬고 게임 존과 문화체험 존, 리플레쉬 존에서는 스트레스를 윤택하게 씻어내기도 하였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플라마켓을 둘러보며 취향이 반영된 소품 고르는 여유로움과 익숙한 음식을 장착한 푸드트럭에도 발걸음이 이어졌다. 장기자랑에서는 아마추어 단계를 넘을 만큼 모두가 인정한 숨겨진 보컬의 화음과 선율이 축제 분위기를 상승시켰다. 각 학과가 주최한 무게감 있는 세미나도 학우들의 큰 호응을 일으켰다.

최정권 총장 취임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과 교직원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강우정 이사장님과 법인 이사님들 그리고 성서공동체에 속한 동문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견고했고 분명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 대학은 72년의 긴 세월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강태국이라는 한 소년의 가슴에 심어준 밀알정신과 한반도 복음화를 목적으로 1952년 5월 설립된 후 72년의 긴 세월을 살아남았습니다. 단 순하게 살아남은 것이 아닌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의 일꾼을 보내는 대학으로 그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이 과정에 비굴하게 머리 숙이지 않았고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견고했던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목회자로 살던 저는 그동안 목회의 본질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목양이 무엇인지? 설교가 무엇인지를 놓고 그 본질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8대 총장이 된 저는** 대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학은 미래 세대에 어떤 인재를 길러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성서대학의 인재는 다른 대학 인재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타 대학 총장님들을 찾아가 질문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서 저는 우리 대학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진 대학이라는 걸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처럼 하나님은 우리 대학에 소중한 가치를 담아 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가치가 무엇인지 묻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가치를 3가지로 봅니다

첫째 가치는 작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은 작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작게 만드셨습니다. 학교의 대지도, 학생 숫자도 작습니다. 그럼 작은 게 약점일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 '한국 대학의 미래 백 년'을 놓고 대학 총장과 원로들이 토론한 대담 프로에서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교수님 미래 사회에 가장 이상적

인 교실의 풍경은 무엇입니까?" 철학자가 답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작은 교실이 알맞다고 봅니다." 그는 작은 교실의 두 가지 장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인간관계가 풍부해지고 둘째, 선생님과 학생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실이 됩니다". 맞습니다. 대학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했던 과거의 강의실로는 새 시대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강의실은 토론과 사랑, 협력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학은 작아서 교수와 학생들 간의 친밀도와 사랑이 깊고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선·후배가 같은 전도반과 동아리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가져야 할 역량으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소통과 협업을 통한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인재를 양육해 왔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복음 전도자를 위한 전문인 교육을 이뤄왔고 공동체의 화합과 소통의 사회인을 키워 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성서대학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대학은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움은 건물이나 나무, 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의 참 아름다움은 학생입니다. 건물이나 나무보다 학생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메마른 건기 때 이스라엘 농토를 적시며 풍요함을 일궈 낸 새벽녘 단비처럼 아름다운 새벽이슬과 같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대학의 가치는 바로 시대에 맞는 인재를 세상에 보내는 데 있습니다. AI 인공 지능이 지배할 세상에서 참 인재란, 정직과 성실 그리고 인성 따뜻하고 공동체를 섬길 섬김의 역량을 갖춘 인재여야 합니다.

총장으로서 저는 교수님, 교직원과 함께 우리 학생들을 이러한 인재로 키워 성경의 아들과 딸로 아름답게 자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를 묵상하다가 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봤고 에스더는 믿음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가치는 하나님이 이 대학에 보내 주신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인재, 공동체를 살리는 인재로 키울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세 번째 가치는 강한 힘입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행정가이신 전(前) 총장 강우정 이사장님의 인도로 우리 대학은 믿음의 가치와 함께 세상 가치에도 절대 뒤지지 않으면서 교육부가 요구한 지표까지 다 달성한 기독교 대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 대학은 앞으로 더 강한 대학교로 거듭 성장해 갈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강함이 저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압니다.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고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대학의 힘은 재정이나 숫자에 있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걸어갈 겁니다. 총장으로서 저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섬겨 갈 복음 전도자 내보내는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편입생 41명 예수를 구주로 영접

5월의 캠퍼스에 펼쳐진
하늘나라의 잔치

CCC 송성은 간사 인도
양육은 우리 모두의 책임

올해 우리대학의 전도집회를 통해 41명의 불신 신·편입생이 주를 구주로 영접하였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우리 캠퍼스에서 펼쳐진 것이다. 올해 신·편입생은 모두 268명으로 그 중 93명(38%)이 불신 학우였다. 민기로 작성한 41명은 불신 학우 중 44.1%이다. 나머지 52명(55.9%)은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영접 초청에 응하지 않은 학우들이다.

전도 집회는 지난 5월 22일 로고스홀에서 CCC의 송성은 간사가 인도하였다. 송 간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학우들에게 구원의 도를 역설하였다. 복음 제시가 끝나고 송 간사는 먼저, 영접 기도 내용을 읽어 주고 이어서 “기도 내용을 따라 하고 싶은 분들은 따라 하면 좋겠다”며 구원의 자리로 학우들을 초대하였다. 41명의 학우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였다. 41명을 학과별로 보면 성서 4명, 사복 16명, 영보 6명, 컴소 6명, 간호 9명이다.

이들 가운데 4명이 양육 교육을 희망하여 5월 28일(화)과 29일(수) 오후 12시 30분~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양육 교육을 받았다. 교목실은 앞으로도 양육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양육은 공동체 모두의 사명이다. 돌아온 학우들에 대해 책임지도 교수를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선교적 관심과 기도가 요구된다.

교목실(실장 강규성 부총장)은 “하나님께서 학우들을 이 학교로 보내신 뜻은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52명의 불신학우들에게도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불신학우 “0”의 굳은 결의를 표했다.

김현광 교수 AI 융합학부신설추진단 위원 임명



김현광 교수 (성서)

최정권 총장은 지난 5월 21일자로 2024년 AI융합학부신설추진단 위원에 김현광 교수(성서학과 과장)를 추가로 임명하였다. 김현광 성서학과 과장의 위원 임명은 신설 「AI융합학부」가 명실공히 「제2의 성서학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학교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2의 성서학과」라는 뜻은 신입생 모집단계부터 복음전도자를 꿈꾸는 학생을 선발하고, 1학년 BRC 과목을 비롯하여 철저한 신앙교육과 훈련을 성서학과 수준으로 이수토록하여 복음전도자의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른 대학과는 기본부터 다른 AI인재 양육이 목표이다.

“말씀에 의지한 인생 항해를 펼쳐 가자”

4 학년 주관 예배
말씀과 간증에서 진정성 가득



주관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황순영 학우

4학년 학우 중심으로 예배가 펼쳐지는 ‘2024학년도 1학기 4학년 주관 예배’가 5월 14~24일까지 진행되었다.

황순영 학우가 16일 ‘풍랑 속에 있는 당신에게’(막 4:35~41)로 말씀을 전했다. “우리 모두 청년의 때를 맞는다. 청년은 젊음, 에너지, 열정을 갖고 도전하지만 현실은 버겁고 고단하다. 본문은 바다의 거센 풍랑에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소연하며 고난 가운데 믿음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 앞길에도 수많은 풍랑과 마주할 것이다.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쓰임 받는다. 우리 모두 절망을 떨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에 의지한 인생 항해를 펼쳐 가자”고 말했다.

진은선(사복) 학우는 청소년 시절 친구에게 받은 상처가 큰 아픔을 줬다. 삶이 무의미했지만 주님과 인격적 만남으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다. 상처를 통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게 하려는 주님의 동행이심을 확인했다. “우리 앞에 가로 놓인 고난으로 갈등을 겪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다. 작은 나를 통해 약함이 강함이요, 자랑임을 고백하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크게 사용해 줄 것”이라고 간증하였다.

2주간 진행된 주관예배 간증자 및 설교자는 다음 표와 같다.

주차	일자	간증자	설교자	설교 제목
1주차	14일(화)	진은선(사복)	김택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16일(목)	채경훈(사복)	황순영	‘풍랑 속에 있는 당신에게’
	17일(금)	김진(사복)	조은수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2주차	20일(월)	황예준(사복)	김예성	‘마음과 생각이 다를 때’
	21일(화)	이승호(사복)	신송연	‘사람을 살린 이유’
	22일(수)	김지예(컴소)	김삼열	‘함께 하시는 하나님’
	23일(목)	이주찬(컴소)	설예찬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24일(금)	성민창(컴소)	김덕기	‘사과 말고 토마토’

개교 72주년 기념 대학원 세미나

주제 강연 김은호 목사
“복음전도는 각자의 영역에서 복음이 살아나도록 힘쓰는 것”



김은호 (연지교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대학원(원장 조혜경 교수)이 주최한 개교 72주년 기념예배 및 세미나가 성서대학교 회 반세호 목사를 비롯 노원지역 목회자가 참여한 가운데 5월 13일 오후6시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기념예배는 박태수 교수(교학처장) 사회, 설교는 김은호 목사 (백령도 연지교회 담임, 전 본교 교수)가 말씀을 전했다.

김은호 목사는 이어진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자발적인 복음전도자’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김 목사는 고린도전서 9장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복음전도자인 바울의 헌신과 그의 복음 전도의 방법을 전하였다. 사도바울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노예됨을 선택하였다. 복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는 의도를 실행에 옮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는 복음전도는 각자의 영역에서 복음이 살아나도록 힘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의 제2의 주제는 강우정 이사장(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 설립자 강태국 박사의 삶을 주제로 이어 갔다. 그는 설립자가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돈을, 명예를 도둑질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었는지를 목격담을 통해 증언하였다. 강 이사장은 설립자는 1934년 일본 고베시에서 ‘천국운동 50년 계획’을 세운 이래 그가 세상을 떠나는 1998년까지 일관되게 살았으며 그 과정에서 시간과 돈과 명예에 대한 자세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행동강령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성서), 조윤경 (영보) 정해덕 (컴소) 교수 정년 퇴임식

“주님의 은혜
복음전도자의 삶을 사는 KBU 인 될 것”



김승호 교수 (성서) 조윤경 교수 (영보) 정해덕 교수 (컴소)

김승호(성서), 조윤경(영보), 정해덕(컴소) 교수의 정년퇴임식이 29일 로고스홀에서 열렸다. 최은희 학사부총장의 약력 보고에 이어 최정권 총장이 퇴임교수들에게 기념패를 전하며 축하하였다.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김승호 교수는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전 3:1~11)로 설교하며 퇴임 인사를 전했다.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하신 때가 있다. 복음전도자로 부르셨고 이제 정년을 맞는다. 몸은 떠나도 복음전도자의 삶을 사는 KBU인이 될 것”이라고 설교했다. 퇴임인사에 나선 조윤경 교수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가족과 제자, 교직원에게 감사하고 한국성서대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흠모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것”을 기원하였다. 정해덕 교수는 “아름답고 강한 우리 대학교에서 정년을 마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공동체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인사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그동안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을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남은 삶은 멋과 맛을 즐기는 여유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광(성서) 교수가 “세 분은 충성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며 남은 인생 여정을 강건히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3개 학과로 구성된 제자들이 특별찬송을 합창하며 이별의 아쉬움을 담아 냈다.

20년 장기 근속자 강정원 교수, 최지은 팀장 포상

“은혜요 축복, 사명의 시간”
주님께 영광 돌려



강정원 교수 (영보) 최지은 (팀장)

20년간 헌신한 강정원(영보) 교수와 최지은(도서관) 팀장에게 장기 근속자 포상이 있었다. 지난 22일 낮 채플에 이어 진행된 포상식에서 최정권 총장이 이들에게 근속감사패와 부상을 수여하였으며 교수회와 우리회에서 근속 축하 꽃다발을 선물했다.

강정원 교수는 “성서공동체와 20년을 함께 할 수 있는 건 은혜요 축복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으며, 최지은 팀장은 “열심히 봉사하라는 사명의 시간이었다”라며 모두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렸다.

우리 대학의 장기 근속자 포상식은 전통적으로 개교기념일인 13일 개최하는데 올해는 총장취임식과 겹쳐 22일 치르게 되었다.

김승옥 교수, 우수논문상 수상



김승옥 교수 (영보)

김승옥(영보) 교수가 논문 ‘유아흡연위해(危害)예방 가정연계 프로그램 적용 효과’로 지난 4월 27일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회장 이해원)로 부터 한장연구부문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 논문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모에서 선정된 김 교수의 영유아를 위한 가정연계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논문이다.

본교 교수들 활발한 학회, 대외 활동

학회 회장만 8 명 , 18 명 교수가 51 개 중요 직분 맡아
강규성 부총장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우리 대학 교수들은 전공 관련 학회 활동 등 학문적인 기관, 단체에서의 활동은 물론 관련 사회단체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21-24)우리 대학 44명의 교수 중 18명(40.90%)이 회장, 부회장, 이사 등 51개의 중직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강규성 부총장(성서)은 지난 4월 한국복음주의신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학회는 1981년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0개의 분과 학회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35개의 국내외 회원학교와 약 1,000명의 교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학회의 분과 학회인 조직신학학회, 신약학회, 역사신학 학회의 회장이 우리 대학의 박태수, 김현광, 조현진 교수(성서)이다.

전국적인 학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교수는 김현광 교수(성서, 한국개혁신학회 신약학회), 이민규 교수(성서, 한국신약학회), 김정원 교수(영보, 한국기독교 유아교육학회 회장, 한국어린이문학교육 학회 부회장), 장인순 교수(간호, 한국학교보건학회)가 있다. 학회지의 논문심사 위원은 회원 교수들의 논문을 심사하는 권위 있는 직위인데 최은희 교수(간호)는 5개 학회지의, 장인순 교수는 4개 학회지의 논문심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 외에 이사, 자문위원, 평가위원, 감사 등으로 다양한 직책을 맡아 소속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본교 교수 전국 각 학회 관련기관 섬김 현황				
학과	교수	학회 및 기관	직위	임기
성서 6명 9개 직책	강규성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2024.4~2026.4
		한국성경신학회	감사	2022.1~현재
	김현광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회장	2023.10~현재
		한국개혁신학회신약학회	회장	2022.6~현재
	박태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2023.1~현재
		한국신약학회	회장	2022.4~2025.4
	이민규	GT선교회	신학자문위원	2022.4~2025.4
조현진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	회장	2022~2023	
	최사랑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상담사교육부위원장	2023.6~현재
사복 2명 8개 직책	김성경	한국아동복지학회	이사	2014.1~현재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이사	2015.1~현재
		한국다문화복지학회	이사	2016.1~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2017.1~현재
		아동권리보장원 평가자문위원회	평가위원	2021~2023
		노원구청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2010~2023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시험	면접위원	2023~현재	
배진형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자문교수	~현재	
영보 5명 13개 직책	강정원	한국영유아교원학회	부회장	2023~현재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이사	2023~현재
	김승옥	한국유아교육 협회	부회장	2023~현재
		한국영유아교육 보육학회	기획이사	2023~현재
	김정원	한국보육지원학회	교육이사	2023~현재
		한국영유아음악교육학회	이사	2023~현재
	장현진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	회장	2020~2023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부회장	2023~2024
	조윤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	자문	~현재
		한국육아지원학회	이사	2020~현재
정해덕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이사	2023~현재	
	노원구 늘사랑어린이집	운영위원	2021.3~현재	
간호 3명 20개 직책	장인순	밀알복지재단산하 구립목련어린이집	운영위원장	2000~현재
		한국인터넷정보학회지	편집위원	2007~현재
	최은희	한국학교보건학회	회장	2024~2025
		한국직업건강학회	이사	2023~현재
		직업건강협회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	2023~현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자문위원	2023~현재
		경기도통합건강증진지원사업단	전문위원	2023~현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논문심사위원	2024~2025
		한국간호과학회 JKAN논문	논문심사위원	2024~현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논문심사위원	2024~현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논문심사위원	2024~현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심사위원	2024~현재
	홍소윤	한국정신간호학회	심사위원	2024~현재
		한국간호산업학회	교육위원	2023.5~현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2023.6~현재
	한진호	한국간호과학회	감사	2024.3~2026.2
		한국성인간호학회	감사	2021.1~2023.12
한국간호과학회 JKAN논문		논문심사위원	2011~현재	
임상간호연구		논문심사위원	2011~현재	
노인간호학회지		논문심사위원	2011~현재	
최은희	중환자간호학회지	논문심사위원	2011~현재	
	재활간호학회지	논문심사위원	2011~현재	
기초	한진호	ICT첨단기술학회	운영위원회 이사	2023.1~현재

‘짜투리 스터디’ 21 명만 남아 열공 중

긴 호흡으로 학업을 돕는
‘마라톤 프로젝트’도

학생의 자발적인 학업 습관을 실천하도록 응원하는 ‘짜투리 스터디’ 프로그램은 당초 45명이 참여하여 출발하였는데 5월 말 현재, 21명만 남아 자신과의 싸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강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 등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주 3시간 이상 학업에 투자하도록 독려하여 학습 능력은 물론 효율적인 시간 관리능력까지 높이게 한다. 5월 7일 시작하여 6월 16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교수학습센터에서는 중간에 포기한 학우를 독려하며 재기하도록 도움 예정이다.

센터는 또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예, 학업성적, 토익성적 향상)를 가지고 도전하는 학우들을 위해 단기적인 ‘짜투리 스터디’보다는 긴 호흡으로 돕는 ‘마라톤 프로젝트’도 갖추고 있다. ‘마라톤’은 지난 3월 학년 초에 시작하였으며, 학년 말까지 계속된다. 20 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센터는 이들을 위해 학업 계획 수립부터 학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코칭 등 개별적인 맞춤 학업 지도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제 10 회 전자정보박람회 고승태홀

“도서관 전자정보관으로 장착”, “진보 실감”



고승태홀에 마련된 전자정보박람회장을 찾은 학우들

도서관(팀장 최지은)이 주최한 제10회 전자정보박람회가 22일 고승태홀에서 진행되었다. 박람회는 참여 업체가 학우들의 도서관 이용 시 요구되는 각종 전자정보자료(웹DB, 전자책, 전자저널, 웹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전자정보 검색의 다양성과 활용 능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행사이다.

박람회에는 △ e-article △ 한국학술정보 △ 누리미디어 △ 다락원(참정보) △ 아이원이즈(도서관이용교육) 5개 업체가 참가했다.

215명의 학우가 박람회장을 찾았고 경품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 LED스탠드, 문화 및 맥도날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의 푸짐한 선물도 받았다.

총동문회 발전기금 1 천만 원

성서대 총동문회(회장 윤두태, 가성교회 담임)에서 개교 72주년을 축하하며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윤두태 회장은 “동문회 회원들이 모교의 발전을 염원하며 사랑의 마음을 모았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온 소중한 후배들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곳곳이 걸도록 후원하며 기도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성서선교회 발전기금 1 천만 원

한국성서선교회(회장 현희철, 중앙성서교회 담임)에서 발전기금 1천만 원을 후원해 주었다. 현희철 회장은 “학교가 72년을 한결같이 복음전도자 양성에 매진해 오는 여정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말씀 그대로를 세상에 전파하는 소명자 양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 하였다.

2023 NSLB 교육지원단 우수성과 공유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



우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는
최사랑 진로심리상담센터장

2023 NSLB(No Student Left Behind) 교육지원단(단장 이성아) 우수성과 공유회가 29일 오후 갈멜관 305호에서 진행되었다. 지난해 NSLB가 운용한 우수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 진로심리상담센터 최사랑 센터장

‘진로교육과정 체계 구축’ 프로그램은 전공과 비교과를 융합시킨 체계적 진로 교육이다. 학과와 학년별로 구분, 전공과 연계시킨 비교과 이수체계가 그물망처럼 촘촘히 짜여 있다. 학우들의 자기이해, 대인관계향상, 진로탐색 등을 도왔다. 총 참여자는 874명이다. ‘진로 수업 만족도’는 전년 82점에서 97점으로, ‘진로 정체감’은 76점에서 77.2점으로 향상되었다.

▲ 교수학습센터 윤혜진 센터장

‘RUN 학습지원체계 및 로봘 게더타운 구축’ 프로그램은 기초학습역량단계(학습법 워크숍)와 자기 주도 및 협력 단계 등에 맞춰 Design Thinking 등 8개 프로그램이 보완을 통해 긴밀히 운영되었다. 개별 학습자 맞춤형(학업(學業) 공동체) 등을 지원, 역량향상과 중도탈락 예방, 소명과 비전을 이뤄 사회구성원의 책임을 구현하였다. 총 1069명이 참여했고 하위 8개 분야 전 영역 성과가 100%~150%를 초과 달성했다.

▲ 취창업지원센터 문지예 센터장

학우들과 개별적인 취업 상담, 설계(취업역량 강화), 경쟁력 강화(취업동아리)를 거쳐 최종 ‘Cheer up Interview’(실전면접) 프로그램을 실전 맞춤형으로 운영했다. 각 프로세스에서 노출된 개인의 단점 보완 및 반복 학습을 통해 실제 취업시장이 원하는 전공역량, 공동체적 사회성 등의 장점이 잘 표현되도록 조율해 왔다. 총 994명이 참여했고 전체 만족도는 91.3점, 취업역량(사전-사후) 평균은 전년도 보다 16.2점 높였다.

▲ 지역사회임팩트센터 한진호 센터장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미래성장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임팩트 공모전(ME래를 WE하여 등 7개 팀) 및 우수프로젝트 운용을 통해 지역 내 도움이 잘 미치지 않는 소수의 개별 단체(시설보호 청소년, 탈북민 청소년) 등에서 봉사과 섬김으로 예수 사랑을 실천하였다. 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 등 전체 프로그램에 447명이 참여, 만족도는 93.2점(전년도 92.7)을 받았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로부터 ME래를 WE하여 팀과 Up! Up! Up!팀이 우수봉사상 공동 1위를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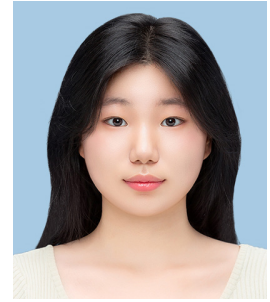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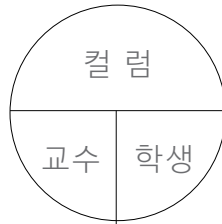
1 학기 성경 졸업고사 66.9% 합격

18일 시행한 2024학년도 1학기 성경 졸업고사에 312명(89.1%)이 응시하여 218명(69.9%)이 합격하였다.

지난 해 1학기 합격 51.4%에 비해 18.5% 상승한 높은 기록이다. 합격자는 4학년(72.9%)이 가장 높았고 2학년(70.9%), 3학년(70.1%), 1학년(65.9%) 순으로 드러났다. 2학기 시험은 11월 9일 있을 계획이다.



정해덕 교수(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우민영(사복 4)

두 갈래 길

이제 2024 학년 1 학기를 마치면 한국성서대학교 교정을 나그네처럼 떠나야 한다. 4월 15일 최경권 총장님과 개인 면담에서 받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요 이로다”(미 7:8) 말씀이 내 인생 여호와 닮아 됐다.

2020년 건강검진에서 큰 질병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여서 절망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가족과 상의 끝에 먼저 병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신체 회복으로 맨발 걷기를 병행하자고 결론 냈다. 이후 병원 치료를 마치고 작년 9월부터 오늘까지 매일 13.5Km(맨발로 6km 이상 걷기 포함)를 걸었다. 8개월 간 2,800km를 걸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로 환산하면 7번 가는 거리다. 매일 100km씩 걸어도 약 한 달이 소요된다. 현재는 거의 모든 검사 수치가 왕성하게 회복되고 더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는 오투기처럼 우뚝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공효함이 더해진 결과다. 어두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빛이 되어 줄 것임을 신뢰하며 기대에 맞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되돌아보니 지난 20년간 성서공동체와 함께한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다. 힘든 순간도 ... 그러나 행복한 시간과 감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공효함이 더해진 20년이었음을 고백한다.

나의 바람은 성서공동체가 건강한 육체 안에서 주 안에 합한 자로 거듭나고 나아가 주님께 영광 올리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한다. 그 연장선에서 내가 검증한 맨발 걷기를 추천하고 싶다. 혈액순환과 심리적 안정은 물론, 발 코어 근육강화 및 땅과 접지하는 효과 등을 듬뿍 안겨준다. 정년퇴임으로 몸은 떠나지만 여기서 배우며 가르쳤던 복음전도자의 길과 또 다른 길을 걷고 걸어갈 것이다.

조별과제 무임승차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사회문제이듯 대학생에게도 '조별과제 무임승차'는 크나큰 골칫거리이다. 어쩌다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며 새로운 의견 나눔의 장인 조별과제가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 되었을까? 조별과제는 공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 중심 잡기 어렵다. "나 아니어도 하겠지" 같이 비협조적이어도 안되고, "내가 말 한대로 하면 되는데"를 외치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모두 조별과제를 괴롭게 만든다. 따라서 협력과 존중을 유지하여야 좋은 조별과제를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조별과제 문제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일에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된다.

지난 학기를 되돌아보면 조별 '과제'는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조' 안에서 협력과 존중이 부족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좋은 과제를 제출하고 싶은 욕심으로 나의 의견만 강조하기도 했고,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 노력보다는 못한 부분에만 주목하였다. 그러나 실습 그리고 캡스톤을 통해 팀원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였더니, 그 과정에서 결과보다는 더욱 소중한 동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전의 불평불만만 가득하였던 조별과제를 새롭게 되돌아볼 수 있었고 나의 부족했던 모습을 성찰할 수 있었다.

만약 조별과제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보다 협력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과제에 임해보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자신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여도 나 역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배울 점이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사람도 없으므로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한 조원에게서 예상외로 그만의 장점 등을 새롭게 배울 수 있다.

협력과 존중, 이 뻘하고 흔한 태도를 명심한다면 우리에게 조별과제는 단순히 과제를 넘어 좋은 동료, 뜻깊은 배움을 안겨주고 뿌듯한 성취감까지 얻게 해 주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이 칼럼을 통해 다들 조별과제가 우울한 편이 아닌 희망 가득한 현실로 이어지길 응원한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광야의 영성

아버지는 제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목회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와이셔츠를 입은 채로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곤 하셨습니다. 늦은 밤, 설교 준비하다 잠이 드신 건데, 얼마나 고단하셨던지 천정이 들썩일 만큼 코 고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대부분 소파에서 주무시는 날은 잠들 때까지 책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며 아버지 모습이 많이 생각납니다. 비록 크고 명성 있는 목회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40여 년을 목사 안수받고 한 교회에서 목회 소임을 묵묵히 다할 수 있었을까? 존경스럽습니다.

아버지는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여행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께서 새벽 강단을 비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야속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성경책은 세로로 쓰인 한문 성경인데 구절마다 깨알 같은 글자가 한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 성경 많이 읽으면 용돈 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밀줄 그으며 읽는 흥내(?) 내고 용돈 받아낸 기억이 납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사는 모습대로 산다고 합니다. 곧 부모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인데요, 목회자로서 아버지의 삶을 많이 닮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밤잠 설치며 말씀을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시던 그 열정을 닮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귀히 여겨 섬기던 목회자의 중심을 닮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내 모습은 어떻게 기억될까? 생각해 보니 가슴이 철렁합니다. 부모는 말이 아닌 부모가 살아온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중한 믿음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삶을 본받고 순종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골3:20). 부모 세대가 경험하고 누리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시 119

별 신경림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https://blog.naver.com/ekf1121/223358761144>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보이기 시작한다. 밖이 환하면 안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 소란하고 분주했던 밝음이 지나가고 어두움이 내려앉으니 비로소 한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별을 보는 세상에선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으로 굴곡졌던 울퉁불퉁했던 삶도 추억이 되고, 용서가 되고, 순전해진다. 반짝이는 기능이 탑재된 맑고 밝은 별의 세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된다.

홍경택

도서관 – 예언자 (Library-A Prophet 2017-22)



미국 미술관에서 한국인의 작품을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국화가에 대한 특별 전시회가 아닌 일반 전시회에서 이런 행운을 만난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인이 많이 사는 샌디에이고라는 도시이기 때문이 아닌 한국 문화의 상승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필 화가로 잘 알려진 홍경택 화가의 책장 시리즈 중에 이 작품이 가장 최근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 옆에는 눈 가린 소녀가 무너져 내리는 책들 속에 아무 생각도 없이 잠자고 있는 소년에게 뭔가를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속에 의식이 없이 사는 오늘날 사람들 모습을 표현한 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작품은 예언자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옛날 다미 선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다미선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순수한 아이들의 입을 통해 계시를 주신다고 주장했는데 예언자로 그려진 어린 소녀를 보면서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오빠인 듯한 남자아이는 즐기고 있고 위험을 감지한 어린 여자아이의 손가락은 오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책더미를 가리키고 있습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45호

니다. 눈에 띄는 건 책의 제목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책이나 안정적으로 누어져 있는 책들, 어느 책에도 제목은 없습니다. 명색이 도서관인데 책장의 어떤 책도 손대 묻은 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소녀의 눈입니다. 눈을 가린 여자아이는 어떻게 책이 무너지는 걸 알 수 있었을까? 자신 위로 떨어지는 책을 보지 못하고 오빠의 위험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소녀가 지적하는 건 책이 아니라 새가 날아갈 방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눈 가린 아이에게는 무너져 떨어질 책의 소리보다 새의 날갯짓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렸을 겁니다.

이 그림에서 부러운 건 화가의 색깔입니다. 색은 차갑습니다. 비록 밝은 색을 사용했지만 에드워드 호퍼의 색처럼 차갑고 냉정해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색을 한 건 새인데 살아 있다는 느낌보다 박제 아닌가 하는 죽음의 색을 가장 밝게 표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음이 밝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검은 색과 흰색으로 표현한 여자아이의 원피스와 남자아이의 옷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비록 하나는 자고 하나는 깨어 있지만 깨어 있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가 없고 다가오는 위기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깊은 위기감이 그림에 담긴 모든 색의 생명을 다 앗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림을 뒤로 하고 나올 때 미술관 광장의 햇살은 유난히 밝고 눈이 부셨습니다.

장애아통합교사 소그룹공동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어린이집

장애아통합교사 소그룹공동체 교육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서울지부가 주최한 장애아통합교사 소그룹공동체 교육에 참여하였다. 교육은 4월과 5월 두 차례씩 4회기로 주제는 장애영유아의 요구에 따른 지도방법이다. 프로그램은 장애영유아 행동과 긍정적인 행동지원으로 이해, ABC 관찰기록과 예방전략, 대체 행동지도와 반응전략,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사례가 교육되었다.

한 교사는 “장애유아의 다양한 지도 방법과 대체 방안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다른 교사들과 어려움이나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아통합교사 교육을 통해 통합교사의 역량 강화와 장애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어린이집 생활을 갖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감사반 이진 교사]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강당에 모여 식사하고 있다.



월계중학사회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7일~8일, 무료 급식 어르신 360명을 대상으로 경로식당과 강당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식사 배달과 밑반찬 이용자에게 고기, 떡과 음료를, 7일에는 경로식당 이용자들에게 컵과일을 드리고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다. 또한 13가지 메뉴로 구성된 미니 뷔페도 진행하였다.

컵과일은 5개 어린이집 원아들이 정성껏 포장해 만들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예쁜 모습과 정성에 큰 기쁨과 행복감을 표현해 주었다.

미니 뷔페는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을 양껏 먹는 자리여서 오랜 시간 식사를 즐겼다. 어르신들께는 새로운 기쁨의 시간이었으며 따뜻한 분위기로 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다. [복지서비스팀 김은지 주임]

영유아들이 조부모에게 동요와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꿈빛어린이집

조부모의 날

7일, 어버이날을 맞아 ‘조부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초대장을 받고 자리를 가득 채워준 조부모들은 자랑스런 손주가 직접 펼친 공연을 보며 따뜻한 미소와 박수로 화답해 주었다. 귀여운 율동과 동요, 아름다운 노랫말을 담은 수화 공연에는 큰 박수를 보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분장으로 진행된 코믹 공연을 카메라에 담은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후 교실에서 전통 팽이만들기 놀이를 가졌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팽이를 꾸미고 시합하며 1~3세대가 사랑과 화목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참석하신 조부모께 감사와 사랑의 카네이션 목걸이를 걸어드릴 때 행사는 절정을 이뤘다. 조부모들은 손주와 좋은 시간 보내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었다. [목련반 호한나 교사]

화담숲을 방문한 시니어들이 입구에서 함께 하였다.



상선대학교회

화담숲 나들이

16일, 시니어들과 함께 곤지암 화담숲으로 나들이를 나갔다. 행사가 당초 7일이었는데 우천으로 일주일 연기해 진행됐다. 화창한 날씨여서 모든 게 순조로웠다. 도착하니 봄에너지를 한껏 머금은 강렬한 푸르름이 기쁘게 맞아 주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자연에 시니어분들은 감탄을 연발하며 멋진 풍경 속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겼다.

모노레일 열차 탑승, 맛있는 점심 식사, 티타임 교제 등 알찬 일정에 행복을 시간을 만끽하였다. 참석한 시니어 모두 귀중한 행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는 고백을 내놓고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나누는 뜻 깊은 나들이가 됐다. [강성훈 목사]

부모님께 심을 드리려고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영유아들의 모습 |



상계백병원어린이집

힐링의 날

8일, 어버이날, '힐링의 날'을 선물하였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저녁 8시까지 시간을 보냈고 부모들은 각자 자유롭게 만남의 시간을 통해 잠깐의 여유를 맛보고 휴식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맛있는 저녁과 좋아하는 간식을 먹고 연이어 재미있는 영화 감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이 같은 배려에 웃음 가득한 얼굴로 "오래 간만에 밖에서 저녁도 먹고 카페도 갔어요." "퇴근 후 조금이나마 쉴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라며 교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다. 힐링의 날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사랑스런 아이 모두가 서로에게 섬김과 배려의 마음을 통해 감사와 기쁨을 안겨준 선물과 같은 하루로 기록되었다. [푸른반 이진아 교사]

영유아와 부모들이 물병 평균대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



노원아이중점어린이집

미니 올림픽

5일, 노해로 일대에서 진행된 어린이날 축제에 약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미니 올림픽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휴지 멀리 날리기, 물병 던져 세우기, 빨대 불어 탁구공 옮기기, 물병 볼링, 보자기 골인, 컵에 탁구공 넣기 등으로 구성된 놀이접근성을 높였다. 구성 취지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였다.

안타깝게 당일 비가 많이 내려서 아쉬웠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적극 서로를 응원하며,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우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김민정 교사]

교사 워크샵이 포천 시냇물흐르는교회에서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



상계동어린이집

교사 워크샵

25일, 포천 시냇물흐르는교회에서 서로 격려하고 섬김으로 교사 사명을 높이는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팀별 대항 미니 레크레이션으로 포문을 열었고 오일을 이용한 캔들 만들기, 숯불에 고기 구워 먹기, 모닥불과 불꽃놀이를 진행하며 서로서로 마음의 온기를 높여갔다.

교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통의 상처와 오해, 개인사 등을 전하고 풀며 서로를 받아주는 따뜻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주변을 산책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힘쓰겠다는 다짐도 나누었다. 이 시간을 통해 받은 에너지로 부모들이 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에게는 더욱 행복한 어린이집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컬러데이'에 맞게 노란색으로 환경을 꾸몄다. |



블시영어린이집

어린이날 행사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컬러데이'를 진행하였다. 컬러데이에 잘 맞게 노란색으로 입구와 교실에 환경을 구성했고 특히 영유아가 좋아하는 풍선으로 흥미를 갖게 하였다. 0세부터 만 3세까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물감, 습자지, 볼풀공, 에어 바이킹, 꽃 뽕튀기 등의 재료를 사용해 놀이 공간을 구성했다. 영유아 모두 흡족함을 나타내며 행사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임하였다. 다음날은 열린 어린이집의 날로 정하고 학부모가 일일 보육교사로 나서서 교감을 이어갔다. 학부모들은 간접적으로 보육교사 업무를 통해 수고와 헌신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보육교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었다. [행복한반 김세희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4년 4월 21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총동문회	1000만원(운영)	이흥	170만원(운영)
정현미	1000만원(운영)	유계선(재미동포)	160만원(운영)
오에스더(설립자 가족)	958만원(운영)	한국장학재단	150만원(장학)
성서대학교회(반세호 목사)	948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강우정, 강진(이사장)	832만원(운영)	대한시스템 유한회사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강옥경 권순실 권순웅 김두한 김은주 김은혜 윤지준 이마리 이수진 전보람 전아영 주성현 차나리 2구좌 고난홍 객지윤 구연민 김가람 김미향 김민지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노민지 박성주 오현주 유익숙 장은경 장재원 최윤준 차주엽 3구좌	10구좌 김진만 12구좌 안현정 재학생 및 가족 0.5구좌 박윤경 1구좌 양은성 2구좌 김효선 83.3구좌 정현미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강신애 임수아 2구좌 권서후 배민정 유성현 최난영	5구좌 이상일 15구좌 최선희 부설기관 1구좌 김옥준 호한나 3구좌 박천순 5구좌 차도영 15구좌 지주나 20구좌 차 건 권선제일교회 5구좌 권선제일교회	서문교회 1구좌 윤인호 효성교회 1구좌 진은숙 일 반 1구좌 김인호 오지혜 한춘경 2구좌 서성원 5구좌 주은자 단체 및 기관 1구좌 목양교회 5구좌 예일에드컬/한일성서교회
---	---	--	---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만원 강삼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슬 강옥경 강은혜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고재민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실 권순웅 권순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김기영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병희 김무엘 김민정 김민을 김병렬 김신근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찬 김은혜 김은혜 김은환 김일준 김재현 김정희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범수 남성취 노영민 노한나 도 만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맹현진 문성영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수진 박순임 박이론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중주 박창대 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박해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항목 변지윤 서성식 서유미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은숙 손진규 송민규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신혜영 심두환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염미자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재엽 용아를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윤영원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 진 이진경 이채녀 이철승 이해렬 이해성 이현섭 이현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영 장윤국 장익봉 장익신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민을 조수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차나리 채유경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은석 최인호 최중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호 홍선호 홍성대 홍성식 황승호 황예린 황형록 강해든이 설에스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1만5천원 이에람 2만원 강나경 고난홍 고성호 객지윤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가람	김규리 김동원 김두영 김미나 김미향 김민지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영태 김예경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류종열 박문홍 박상수 박성주 박재송 박주영 박혜숙 소경숙 송만호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오현주 유미영 유익숙 윤광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상준 이아름 이영림 이영애 아우진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익선 이재은 이종임 이흥희 이한별 이현우 임수경 임수정 임은령 임은희 임주영 장우정 장은경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소정 조은별 지다은 최가현 최선옥 최수지 최윤준 최인경 최혜진 최효정 추하은 탁명화 하지혜 한 솔 허춘선 홍진옥 흥해주 황인숙 등대교회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세련 김윤정 김재임 민철정 민찬양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손승현 양연선 우종영 윤문순 이길순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차주엽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 좋은교회 4만원 박주는 배정환 심은진 5만원 강경옥 권민지 김기숙 김동완 김준오 김 진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인순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이유나 이정균 이지은 최경환 최승희 가학교회 성서밀알선교회 세빛교회 월계지역아동센터 화도드림교회 6만원 정동주 10만원 김동관 김선옥 김장교 김중숙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11만원 유선미 22만원 성낙표 45만6천원 정나나 52만원 김인화 100만원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5천원 김서연 이향기 1만원 권명희 김민서 김선경 김은주 나예린 마다현 양은성 이동기 이미숙 이상란 이연신 이혜정 임동화 장영정 전개화 지중배 김효선 박효림 윤성준 1만5천원 강현중 객은혜 권영진 권순주 김미옥 김선미 김선숙 김애선 김은미 김은희 김지혜 김창환 김현정 김형태 박명규 백은숙 송동식 신동숙 연성희 오명찬 이미영 이선경 이승진 이승찬 이은영 이해봉 장영순 장은정 전옥순 정인옥 조복임 조율이 지은영 최경애 최영숙 최정현 최장호 함은애 황미숙 3만원 박미영 박보봉 배정숙 송의택 장숙향 전희복 최정규
---	---	--	---

기부자 명단			
4만원 이경민	2만원 진양희	13만5천원 박은오	이성태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5만원 권오길 김명자 박선희 손미연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변송이	18만원 권태완 김원태 전명진 최대만	이현수 임숙자 조동빈 조목장
안종현 이재현 정주화	안미희 위소진 장나혜	최순남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승
10만원 김승례 박은정	5만원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948만원 성서대학교회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30만원 박지홍	이지연	성서선교회	한춘경 황영수 위셀러듀
1000만원 정현미	10만원 권정아 장수진 차도영	1만원 윤무표	2만원 강명옥 권소영 김미금 길옥석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2만원 금촌성서교회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박재균
교직원 및 가족	20만원 김신덕	3만원 태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이관현
1만원 강신애 객한나 권관희 김미영	35만원 오동준	5만원 동두천성서서삼교회	이일신 정주아 조혜령 최국열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40만원 차 건	월계성서교회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김애란 김지환 김춘하 김형중	권선제일교회	10만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평화교회행복한교회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영우	1만원 이상규	수원교회	3만원 장문석
박요서 박연지 박주양 반우형	5만원 권선제일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	3만5천원 박은영
서광철 양승원 유성준 윤영섭	동광교회	어린양교회	5만원 석지현 이천하 주은자
이문자 이정은 장경순 전광선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1만원 김정희	10만원 서미혜
전귀선 정현아 지수빈 하희수	밀알교회	3만원 임윤창 어린양교회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허윤민 요시다고조	1만원 서효정	7만원 이정선	30만원 박순정
하늘사랑	삼일성서교회	이레교회	50만원 이은선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구자람	1만원 김초롱 오성균 정혜란 한금순	1만원 손미희	160만원 유계선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서문교회	장자교회	170만원 이 흥
김유진 김장호 문지예 민경은	1만원 강신애 박경자 윤인호	4만원 권정숙	단체 및 기관
박은주 박태용 배민정 안 호	1만5천원 정찬수	5만원 장자교회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오철송 유성현 임수아 장길정	20만원 서문교회	주향교회	/늘푸른교회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성서대학교회	1만원 유병우	/맘키즈푸드/목양교회
조철남 최남영 한상만 한정숙	9천원 오경오 이 천 정갑숙 황성모	2만원 정우진	/무진인터내셔널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신재운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3만원 주향교회	/주님순교회
양희정 여진희 유수연 윤혜진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중앙성서교회	/행복한교회
이소연 정지용 추연진	1만8천원 김향순 고경숙 고나경 고미숙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김경일 김덕현 김동석 김문정A	최영란	(주)에이스와식산업
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양단아	김사천 김성은A 김성철 김유미	2만원 신영옥 이수병 강영애.신한성	/도새기짱
유미나 이상일 장정순	김일선B 김지윤 김진철 김향순	3만원 권순호 김덕규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6만원 권순범	김현미 김희자 김희현 박상희A	5만원 권옥자 이경식 한금례	/꿈꾸는교회/우리교회
7만원 임환석	박영숙 박영신 박은선 박인숙	중앙성서교회원로·은퇴장로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객규상 김덕현	박주형 서영우 서 훈 석경순	10만원 김윤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주식회사 이수전기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송형기 오종철 윤도진 윤재필	중앙성서교회 바울성교회	5만원 다드림교회/미사목민교회
김현옥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이대우 이로선 이무현 이봉호	12만원 이준구.안찬자 황인돈.김순자	/본도시락 중계점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이상록 이소정 이영진 이정숙	13만원 오근수	/사랑샘교회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상아	이정자 이종욱 이주현 장근문	15만원 이혜선	/상일교회/예일애드컬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장기영 장진희 장홍림 전옥순	24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천성교회/행천교회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정선희 정예진 정희선 조병하	퇴계원제일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홍소윤	하은희	1만원 유재란	(주)이레E&C이레디자인
김정원(신) 김정원(영)	2만7천원 김영현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11만원 최지은	3만6천원 강미경 권정화 김민자 김배열	평화교회	/구리중앙교회
13만원 김중완 한진호	김성진B 김은미 김인영 김인자	1만원 안종민 안지선	/두암산업(주)/만나교회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김춘환 김혜련 박 선 안봉숙	중앙교회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안정선 이한영	양태환 용정자 유종엽 이경신	1만원 윤은정	/성북중앙교회/소망교회
20만원 김승옥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이관영 이승림 이영희 장혜린	함평대동교회	/철원제일교회/청명교회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정나영 최용석 한성식 허진순	1만원 김희경	/평안교회(신병수)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황시은	효성교회	20만원 (주)소원기 건/도봉성산교회
35만원 최선희	4만5천원 권경만 김순옥 김주아 노봉환	1만원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홍성일	30만원 한민제일교회
50만원 최정권	유형창	일 반	100만원 대한시스템 유행회사
95만원 강일석	5만4천원 김현석 박태수 송재철 이숙영	1만원 구필례 권승영 권창석 김기수	150만원 한국장학재단
832만원 강우정 강 진	최선희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범실	1000만원 총동문회
958만원 오에스더	7만2천원 강유진 박선하 이윤봉 황서린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9만원 강성훈 김용희 김웅기 무 명	김천수 노은경 문혜영 박미숙	
부설기관	박세건 박은유 이은실 이정임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효진	임철순 최강희 한진호 허에스더	송수용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임재택 호한나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화실 이민우 이사랑 이성영	
			소계(20240421~20240520)
			86,821,119
			누계(20240301~20240520)
			190,070,491

한국성서대학교 5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32,799,506원)
삼일교회(송태근 목사) 12,000,000 / 총동문회(윤두태 회장) 10,000,000 / 리스탐미니스트리(동문) 4,150,000 / 강우정 (법인 이사장) 3,810,116
이흥(동문) 1,700,000 / 한국성서선교회(동문) 500,000 / 표길홍(동문 일동성서교회) 289,390 / 오윤선(교수) 200,000 / 대외협력팀 150,000
약정 후원자 (합계 7 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840,000원)
5구좌 박찬혁(재학생) / 2구좌 임은령(교직원)
일시납 누계(4.1~5.22) 41,584,618원 약정자 누계 (4.1~5.22) 29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3,120,000원